

한-케냐 인프라협력센터

건설 · 인프라 동향 보고 (2월 3~4주)

□ 정책 및 시장 동향

① 케냐 주요 경제 동향

○ 주요 경제 지표

	해당년/월/주/일	전년/월/주/일	참고시점
환율(1USD)	129.0	129.1	2025.02.3주
인플레이션(%)	3.3	3.0	2025.1월말
CPI(points)	142.68	141.66	2025.1월말
정부부채비율(% of GDP)	70.1	66.7	2023년말

출처:trading economics

○ 2025년 케냐 경제 전망: 부채 위험 증가와 성장 둔화 우려

- 케냐 경제는 2025년에도 부채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며, 민간 대출 감소, 세율 인상 등으로 성장률이 저조할 것으로 보임으로, 정부의 재정 긴축 정책에 대한 반발도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¹⁾

* 국제통화기금(IMF)는 케냐는 이미 모든 부채 지속 가능성 기준(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 재정 수입 대비 부채 상환 비율, 수출 대비 대외 부채 상환 비율)을 초과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경제 충격이나 차입 비용 증가가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될거라 우려를 표명²⁾

* 케냐 재무부는 2025년 GDP 성장률을 5.3%로 예상했으나, 전문가들은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 FocusEconomics는 2025년 성장률을 5.1%로 전망하며 이는 2024년 예상치(4.8%)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이나 대출 축소, 세금 인상으로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크며, 정부의 재정 긴축 정책이 오히려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강조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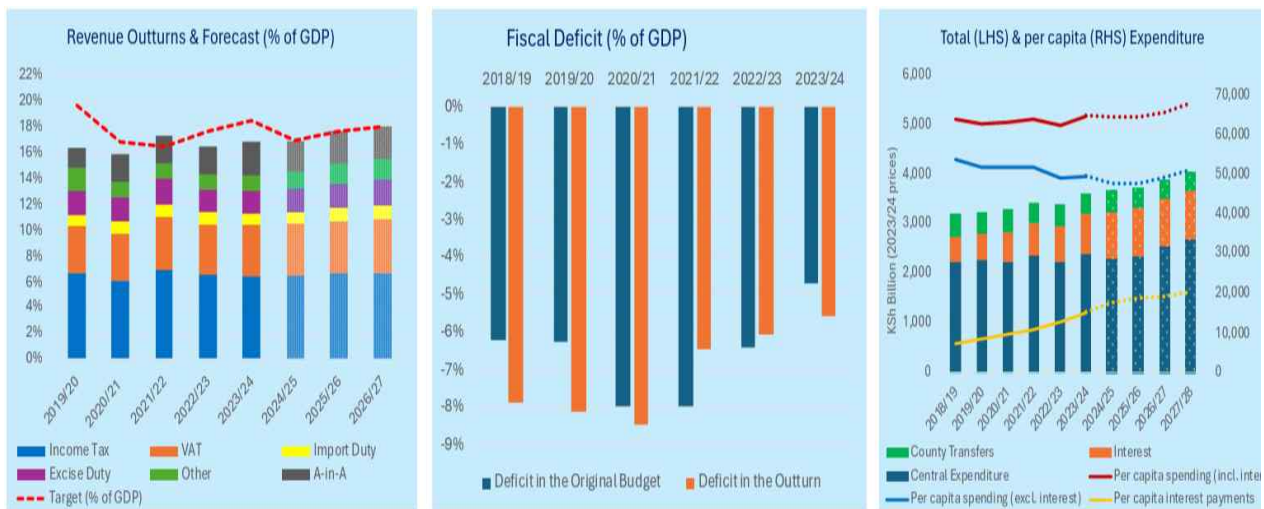
1) <https://ipfglobal.or.ke/wp-content/uploads/2025/01/Abridged-version-2025-MFAS-2.pdf>

2) <https://www.capitalfm.co.ke/business/2025/01/kenya-at-high-risk-of-debt-distress-new-report/>

3)

* 또한 세수 부족으로 재정 적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공공 지출은 감소할 전망. 현재 새로운 세제 개편이 검토 중이나, 비이자 공공 지출이 2028년까지 회복될 가능성은 낮을거라 전망됨. 전문가들은 구조 개혁이 필요성의 지적과 케냐 경제는 2025년에도 성장 둔화와 부채 부담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케냐: 연도별 예산 제감토 전망서>



출처: Budget Review Outlook Paper (BROP)

- 케냐 정부, 2025/26 회계연도 예산 4.2조 실링 승인으로 세수 확대 추진
- 케냐 내각은 2025/26 회계연도 예산으로 KES 4.2조 승인, 이는 2024/25 회계연도의 KES 3.992조 보다 증가한 수치.
- 정부는 또한 2024/25 회계연도 예산에 추가로 KES 3448억을 배정 이 중 KES 1990억은 경상 지출에, KES 1,458억은 개발 지출에 할당될 예정.4)
- * 2025/26 회계연도 예산의 주요 지출 항목은
 - 경상 지출: KES 3.09조
 - 개발 지출: KES 7,251억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economy/global-economists-forecast-rebound-in-kenya-s-growth-4906314#:~:text=A%20gro up%20of%20global%20economists,investment%20and%20boost%20job%20opportunities>. Business Daily Thur Jan 30, 2025

4) <https://nation.africa/kenya/news/cabinet-approves-sh4-2-trillion-budget-sh199-billion-mini-budget-4922668>

- 지방 정부 지원: KES 4,367억

- 비상 대책 지원: KES 50억

* 정부는 확대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아래와 추진할 계획:

- 세원 확대

- 세금 징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기술 활용

- 재정 누수 차단

- 비과세 수입 극대화 등

* 그러나 확대된 재정 계획이 실제 경기 회복과 성장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 제기

○ APRM, “무디스 케냐 신용 평가 근거 부족“ 비판

-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케냐의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 이유는 유동성 리스크 완화 가능성과 장기적인 부채 부담 개선을 강조함. 하지만 케냐의 신용등급(Caa1)은 변동 없이 유지 됨⁵⁾

- African Peer Review Mechanism (APRM)는 무디스의 전망 상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며 무디스의 '부정적'에서 '긍정적' 조정을 중간 '안정적' 단계의 생략을 지난해 신용등급 강등이 잘못된 평가였음을 지적

* AAPRM은 당시 강등이 재정 데이터와 정부 정책 확정 전의 '추측성 평가'였으며,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⁶⁾

* 또한 무디스가 2023년 1월 나이지리아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뒤 후반에 철회한 사례를 언급하며, 케냐의 사례는 과도한 보수적인 평가라 지적.

* 루토 대통령은 현재 정부의 재정 정책이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었다며,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 및 이번 전망 상향이 케냐의 투자 유치와 경제 신뢰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는 가운데, 신용평가 기관의 평가 기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⁷⁾

5) <https://www.reuters.com/world/africa/moodys-revises-kenyas-ratings-positive-potential-liquidity-risks-easing-2025-01-24/>

6) <https://aprm.au.int/en/news/press-releases/2025-01-28/moodys-investor-services-erred-its-kenya-rating-actions>

○ 케냐 중앙은행, 기준금리 10.75%로 인하

- 케냐 중앙은행(CBK)은 기준금리를 11.25%에서 10.75%로 인하하고, 금리 인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힘⁸⁾
- * 이는 기준금리 인하 혜택이 고객에게 제대로 반영하는지 조사 및 은행들이 자금조달 비용 절감을 대출 금리에 적절히 반영하는지를 검토 할 의도를 표명.
- * 이로서 케냐 경제의 유동성 증대와 신용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평가되나, 대출금리 인하가 제한적일 경우 경기 부양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 * 실제 상업은행들의 대출금리는 소폭 하락에 그치며 2024년 11월 평균 대출금리는 17.22%에서 12월 16.89%로 0.33%p 하락함.

2 PPP 관련 동향

○ 케냐 재무부, PPP 정책 재평가 추진, 투명성 강화 목표

- 케냐 재무부는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체계 및 조달 방식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모집 개시.
- 최근 조모 케냐타 국제공항(JKIA) 확장 사업 및 전력 송전 프로젝트 취소 이후 인도계 아다니 그룹과의 공개 입찰 없이 사업 체결 공정성 논란을 반영.
- 이와 관련해 세계은행(World Bank)은 비공개적으로 진행된 PPP 사업이 투자 신뢰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⁹⁾
- 현재 케냐의 PPP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5개 프로젝트의 총 규모는 1,292억 KES(약 10억 달러)에 달함.
대표적인 예로:

7) <https://www.citizen.digital/news/we-are-doing-well-ruto-says-after-moodys-upgrades-kenyas-credit-rating-to-positive-n356515>

8) <https://kenyanwallstreet.com/central-bank-lowers-interest-rates-to-10-75-plans-on-site-inspections/>

9) <https://eastleighvoice.co.ke/business/96603/world-bank-warns-kenya-on-unsolicited-ppp-deals-after-adani-group-contract-cancellations>

*나이로비 고속도로(Nairobi Expressway)

* Sosian Menengai Geothermal Power Plant

- 재무부는 이번 평가를 통해 PPP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 투자 유치와 공공 신뢰를 동시에 확보 외에도 총 32개 프로젝트가 예비 타당성 조사부터 운영 단계까지 진행 중.

③ 인프라 정책 및 동향

○ 서부 지역 전력 인프라 개선에 10억 실링 투자

- 2025년 예산 정책서(Budget Policy Statement)에서 전력 생산, 송전, 배전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정책 및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 이번 인프라 투자를 통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산업 및 지역 경제 성장을 지원(10)

- 케냐 전력공사(Kenya Power)가 서부 11개 카운티의 전력 공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 KES 10억 케냐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단행: 11)

- 주요 송전선 사업:

Narok-Bomet 33kV 송전선: KES 7억 투자 완료, 남부 Nyanza 및 서부 지역 전력 안정성 강화

Kibos-Miwani-Ahero 및 Kisian-Luanda 33kV 송전선: KES 1억 8,900만 규모의 공사 진행 중

Thuridiburo - Ndiwa 132kV 송전선: 케냐 전력송전공사(KETRACO) 개발 중, 전력 운송 개선 및 대체 전력 공급

이외 사업: 송전 및 배전 인프라 확장

- 신규 송전선 건설: 1,742km
- 송전 변전소 구축: 21개
- 신규 배전선 건설: 1,050km
- 배전 변전소 건설: 33개
- 전력 연결 대상: 144만 가구, 1,080개 공공시설

10) <https://www.treasury.go.ke/wp-content/uploads/2025/02/2025-Budget-Policy-Statement...pdf> pg20

11) <https://www.capitalfm.co.ke/business/2025/02/kenya-power-to-spend-sh1bn-to-boost-western-kenya-power-supply/>

○ 케냐, 공공조달법 개정 추진, 정부 계약 임의 해지 제한.

- 케냐 정부가 공공조달 및 자산처분법(Public Procurement and Asset Disposal Act) 개정안을 추진하며, 정부 계약의 임의 해지를 방지하는 조항을 도입할 예정¹²⁾

* 이로서 정부 기관은 계약 해지 전 반드시 서면 통지를 제공하고, 계약자가 소명할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하며, 법무차관(Solicitor General)이 해당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의무적으로 확인.

* 이번 법안 추진은 윌리엄 루토 대통령이 최근 부실한 계약자에 대한 입찰 취소 가능성을 경고한 것과 맞물려 나온 조치로 보이며, 이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비합리적인 계약 해지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줄이는 것을 예상.

④ 정치 동향

○ 케냐, 북부 주민 대상 신분증 발급 심사 폐지, 차별 철폐 vs. 안보 우려

- 루토 대통령, 북부 케냐 주민들의 신분증(ID) 발급 시 의무적으로 진행되던 심사 절차를 폐지하는 대통령령(Presidential Proclamation)에 서명.¹³⁾

- 이번 조치는 1960년대 시프타 반란(Shifta insurgency) 이후 도입된 신분 심사 절차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며, 그동안 북부 국경 지역 주민들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해 강도 높은 신원 검증 과정을 중지

- 정부는 이번 개혁이 모든 케냐 국민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힘

- 그러나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심사 절차 폐지가 비시민권자들이 케냐 신분증을 취득할 수 있는 허점을 우려

- 이번 조치가 국민 통합과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¹⁴⁾

12) <https://www.the-star.co.ke/news/realtime/2025-01-22-bill-stops-random-termination-of-state-contracts>

13) <https://www.president.go.ke/government-ends-extra-vetting-for-id-registration-in-borders-counties/>

⑤ 대외관계 동향

- AU위원장 선거, 지부티 외무장관 마하무드 알리 유수프 당선
- 2025년 2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아프리카연합(AU) 정상회의에서 케냐의 라일라 오딩가(Raila Odinga) 전 총리가 AU위원장 (Chairperson of the African Union Commission, AUC)직에 당선 실패.
- 오딩가는 넓은 정치적 경력과 일부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부티 외교장관 마하무드 알리 유수프 (Mahamoud Ali Youssof)에게 밀리며 유수프 장관은 7차례의 투표 끝에 AU위원장직을 확보했으며, 차드 출신의 무사 파키(Moussa Faki)의 뒤를 이어 향후 4년간 아프리카연합을 이끌게 됨.
- 오딩가의 패배에는 AU 회원국 간의 지부티는 전략적 외교력을 바탕으로 동아프리카 및 기타 지역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냈으며, 이는 최종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평가됨.

14) <https://www.capitalfm.co.ke/news/2025/02/natembeya-criticizes-id-vetting-scrap-in-northeastern-cites-security-risks/>

□ 일반 프로젝트 동향 및 센터 운영 현황 보고

① 일반 프로젝트 동향

① Bus Rapid Transit (BRT) Line 5 Project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케냐도시도로청 (KURA)
- (도 급 사) To-be-selected
- (사 업 비) USD 59 million
- (Funding) 한국수출은행 (K-Exim Bank)
- (사업내용)
 - *노선 구간: 올속스(Allsops)~이마라 다이마(Imara Daima) 10.5km
 - 교량 건설: 3개 하천 교량(1,024m), 2개 오버패스(323m)
 - 인프라 확충: BRT 정거장 13개, 신규 보행교 및 기존 보행교 개조, 배수 시스템 구축
 - 전기·기계 설비 및 가로등 설치
 - 1,365m² 규모의 BRT 차량기지(BRT Depot) 건설¹⁵⁾¹⁶⁾
- (추진현황)
 - 2014: 케냐 교통부가 대중교통 시스템(Mass Rapid Transit System-MRTS) 연구 실시, 5개 BRT 노선을 포함한 계획 수립.
 - 2019: 나이로비 광역권(Nairobi Metropolitan Area-NMA) 이사회에서 BRT 노선을 공식적으로 지정.

- (주요상황) KURA는 2024년 9월 BRT 5호선 건설 입찰을 처음 발표했으며, 2025년 3월 착공을 목표로 하며 이번 입찰 재공고는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일부 절차가 조정되었음을 시사하며, 정부가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됨¹⁷⁾¹⁸⁾

15)

[https://namata.go.ke/brt_corridor#:~:text=The%20Ministry%20of%20transport%20infrastructure,Balozi%20\(Allsops\)%20%2D%20Imara%20Daima](https://namata.go.ke/brt_corridor#:~:text=The%20Ministry%20of%20transport%20infrastructure,Balozi%20(Allsops)%20%2D%20Imara%20Daima)

16) <https://www.the-star.co.ke/news/realtime/2024-09-24-inside-kuras-multi-billion-tender-for-brt-line-5-works>

17) <https://www.kenyans.co.ke/news/108847-govt-make-5-modifications-outering-road-after-securing-ksh76-billion-loan>

18) <https://mygov.go.ke/sites/default/files/2024-09/KURA-ESTABLISHMENT%20OF%20BUS%20RAPID%20TRANSIT%20LINE%205%20PROJECT%20.pdf>

② Isiolo-Modogashe Road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케냐고속도로청 (KeNHA)
- (도 급 사) China State Construction Engineering Corporation¹⁹⁾
- (사 업 비) KES 81 billion
- (편 당) 세계은행
- (사업내용)
 - *건설 구간: 이시오로-쿨라마웨(77km), 쿨라마웨-모도가셰(118km) 포함 총 365km
 - *광섬유 케이블 설치: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게이트웨이 개발 프로젝트' 일환으로 도로와 함께 광섬유 네트워크 구축.²⁰⁾
- (추진현황)
 - 2020년 9월: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프로젝트 자금 지원 승인
 - 2024년 9월: 이시오로-쿨라마웨 및 쿨라마웨-모도가셰 구간 건설 개시, 시공업체 캠프 설치, 자원 동원 및 사전 공사 진행 중²¹⁾

- (주요상황) 이번 프로젝트는 이시오로-만데라(740km) 도로 개발의 일환으로, 지역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경제·물류 활성화를 촉진할 것을 목표로, 특히,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게이트웨이 개발 프로젝트와 연계되며 도로와 함께 광섬유 네트워크 구축 예정²²⁾²³⁾

19) <https://eastleighvoice.co.ke/isiolo-modogashe-mandera%20road/23198/chinese-firm-workers-dispute-threatens-progress-of-multibillion-road-project>

20) <https://www.the-star.co.ke/counties/north-eastern/2025-02-04-isiolo-modogashe-road-to-open-up-marginalised-area>

21) <https://documents1.worldbank.org/curated/en/099012624010086485/pdf/P16130514f68c20d41870e1e83c0001e613.pdf>

22) <https://www.president.go.ke/president-ruto-commits-to-transformation-of-north-eastern-region/>

23) <https://x.com/WilliamsRuto/status/1887834752465698892>

③ Nairobi-Mombasa Expressway (Usahihi Expressway)²⁴⁾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Kenya National Highway Authority (KeNHA)
- (도 급 사) Everstrong Capital LL.
- (사 업 비) USD 36억
- (Funding) 국제 투자자, 개발 기관, 연기금, 케냐 민간 투자자 예정
- (사업내용)
 - *.나이로비-몸바사 440Km 고속도로 건설. 고속도로는 4차선 도로와 19개 교차로 구성
- (추진현황)
 - **2018:** 최초 도급사 Betchel, 도로 건설 비용 USD 20억 책정했으나 정부와 파이낸싱 모델 협의 실패
 - PPP 모델로 건설기간 3~4년 책정, 2026 초 건설 시작 계획
 - KeNHA, Everstrong Capital와 프로젝트 개발 합의 서명(2024.5.23.) Everlasting Captial과 파트너들에게 전 개발 권한 부여
 - 완공 시 Everstrong은 30년 기간의 톨비 이용료로 투자비 회수

○ (주요사항) Everstrong Capital-CPF Captial & Advisory와 협약 체결 및 10억 현지 연금기금에서 1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며 현재 F/S 진행 중²⁵⁾

24)

<https://kenyanwallstreet.com/kenya-signs-3-6-billion-agreement-for-development-of-nairobi-mombasa-expressway/>

25)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economy/us-firm-races-for-pension-billions-for-expressway-4913930> Business Daily Feb 7, 2025